

금융기관장 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담회 참석해주어 감사합니다. 서로 만나서 의견을 솔직히 나누는 것은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 간담회를 경제 부총리에게 모아달라고 부탁 했을 때는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로 관심의 폭이 너무 넓었습니다.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금융 산업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 역점산업수준을 넘어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가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협의해 좋은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여러분을 보자고 한 것은 당장 금융기관의 위험요인 같은 것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부처보고를 받으면 금융기관의 위험요인이 없다고 하지만 하도 데어 나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현재상황이 실제로 어느 쪽이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 의견 듣고 싶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97년 위기 원인이 있겠지만 금융 쪽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도 결국 금융권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출발은 정부의 감독 잘못이라고도 하고, 빌려 쓴 사람에 대한 잘못이라고 하는데

빌리기 쉬우니 많이 빌린 것으로 돼있습니다. 빌리게 해 놓고 그 문제가 발생 시에 대처하기보다 ‘나 먼저 살자’ 고 해서 한국 금융권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국가적 위기 위기관리보다 개별위기 관리로 가니 개별회사주주는 박수를 쳤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득보지 않은 결과가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금융위기가 2번째이고, 3번째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안 오는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잘 수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금융기관이 해야 할일이 명확히 무엇인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빌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도 화내고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정부를 바라보고 정부는 더 이상 관치를 앓는다고 하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느냐고 합니다. 얘기해봅시다.

금융허브에 대한 각자의 전망과 복안을 이야기합시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니 국민 불안이 야기된다며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하지말자고 말합니다. 이 분야에 관한한 대통령보다 경제부총리가 더 많이 알고 센데 내가 밀렸습니다. 그러면 금융허브를 한다는데 금융허브 되는지 금융인들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안되면 한국이 뭐 먹고 살고,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하면 되고 못하면 안 된다지만 되는 방향으로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고 싶고 이 대목가면 저나 정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겁니다. 각기 전망과 복안이 있을 것인데 개별적인 복안도 모아 놓으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이 됩니다. 앞으로 금융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고, 마지막 얘기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앞선 의문은 기회가 되면 말씀해주면 고맙겠습니다.